

프로토콜 관리

VE-P1 v0.2.0 (2026)

의견 수렴용 초안 — 적합성 주장 시 인용 불가

VE-D1 v0.4.0 에 따라 작성됨. 편집자에게 의견 제출.

DOI: 10.67330/k1e2bp86

1. 적용 범위

1.1 이 프로토콜의 적용 범위. *The Valuation Engineer* 에서 게시하는 프로토콜의 수명 주기: 제안, 검토, 의견 수렴, 발행, 유지 관리, 개정 및 철회 과정과 각 단계에서 남기는 기록. 이 프로토콜의 대상은 프로토콜이며, 그 결과물은 발행된 버전과 그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1.2 이 프로토콜이 다루지 않는 사항. 이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작성 방식 (명명법, 버전 관리, 적용 범위, 형식, 요구사항 표현 방식 및 적합성 주장) 을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VE-D1 의 대상입니다. 또한 이 프로토콜은 저널의 논문 편집 과정을 규율하지 않으며, 이는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프로토콜이 기술적으로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랐더라도 잘못된 프로토콜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본 문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반대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1.3 본 문서는 법적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감정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어떤 당국이 어떤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은 해당 당국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1.4 이 프로토콜이 배제하지 않는 판단 사항. 특정 의견이 실질적인지 여부, 변경 사항이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토콜이 공개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는 편집자의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며, 이를 기계적인 결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 명시합니다.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것은 각 결정이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5 용어의 정의는 본 저널의 용어집에 명시된 바와 같다. ‘프로토콜’ 은 정의된 과제 (일반적으로 평가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미하며, 본 프로토콜은 본 저널 고유의 과제를 규율한다. 프로토콜은 표준이 아니며, 표준은 이를 제정하는 전문 기관에 속한다. 편집자란 프로토콜 시리즈를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후원자란 프로토콜 또는 프로토콜의 변경을 제안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제안서

R-1 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토콜 또는 기존 프로토콜의 변경에 대한 제안은 작업 시작 전에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제안이 다루는 과제, 기존 프로토콜 및 외부 표준이 이를 다루지 못하는 이유, 의도된 범위, 그리고 발의자를 명시해야 한다.

R-2 해야 한다 기존 프로토콜의 적용 범위를 중복하거나 축소하는 제안인 경우, 어떤 프로토콜인지, 그리고 중복이 의도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R-3 바람직하다 제안서는 초안 작성 시점이 아닌 제안 시점에, 규범적으로 참조할 외부 표준을 버전별로 명시해야 한다.

3. ‘

’ 초안 작성

R-4 해야 한다 초안에는 해당 초안이 작성된 VE-D1 버전이 명시되어야 한다.

R-5 해야 한다 초안에는 v0.x.y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첫 페이지에 적합성 주장에서 인용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R-6 해야 한다 초안은 기계 판독 가능한 요구사항 세트와 적합성 테스트 모음을, 그 상태가 어떠한 간에, 본문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요구사항 세트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초안은 초안이 아니라 제안서이다.

4.

리뷰

R-7 해야 한다 초안은 첫 공개 전, 명시된 기간 (30 일 이상) 동안 지정된 검토자 명단에 포함된 검토자들에게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명단과 기간은 초안과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R-8 해야 한다 저널은 각 초안에서,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프로토콜의 대상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초안에는 자문을 구했을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절차상의 제한 사항은 은폐되지 않고 공개되어야 한다.

R-9 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의견은, 작성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작성자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수락’, ‘수정 후 수락’ 또는 ‘거절’ 로 처리되어야 하며, 각 경우마다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R-10 해야 한다 해당 주석 기록은 출시된 버전과 함께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버전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공개되어야 한다.

R-11 바람직하다 검증 불가능한 요구사항, 즉 어떤 테스트 모음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아티팩트로도 입증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주석은, 그러한 종류의 요구사항이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5. ‘

’ 출시

R-12 해야 한다 VE-D1 §1.3 에 따라 릴리스에 버전이 할당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의 분류 (MAJOR, MINOR 또는 PATCH) 와 그 사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R-13 해야 한다 릴리스에는 대체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대체된 버전에는 이를 대체하는 내용이 명시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릴리스된 버전의 그 외 어떤 내용도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R-14 해야 한다 프로토콜 자체의 요구 사항 집합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모음이 실패하는 동안, 또는 본문 내의 ‘shall’ 조항에 해당 요구 사항 집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거나, 해당 항목에 ‘shall’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릴리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R-15 해야 한다 대체된 버전이 계속 게시되어야 하는가? 그 버전에 근거하여 제기된 주장이 여전히 평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 유지 관리

R-16 해야 한다 발효 중인 각 의정서에는 명시된 검토 주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R-17 해야 한다 검토는 새로운 버전의 출시, PATCH 형태로 발표된 공식적인 재확인, 또는 철회로 종료되어야 한다. 아무런 결과 없이 종료되는 검토는 본 프로토콜의 실패로 간주되며, 이러한 미이행 사실은 보고된다.

R-18 해야 한다 규범적으로 참조되는 외부 표준의 변경 사항은 저널 측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때 프로토콜이 이동하는지 여부와 이동할 경우 어떤 분류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결정 사항도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프로토콜은 참조 표준을 묵묵히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R-19 바람직하다 제거될 예정인 요구사항은, 해당 요구사항이 제거되는 릴리스보다 한 릴리스 앞서 ‘사용 중단 예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클레임이 사전 공지 없이 평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탈퇴

R-20 해야 한다 철회 시 그 사유와 발효일을 명시해야 하며, 철회된 버전에 근거하여 제기된 청구가 여전히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R-21 해야 한다 철회된 프로토콜 번호는 폐기되어야 하며, 다시는 재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기록

R-22 해야 한다 각 릴리스 버전과 함께 다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안서, 의견 기록 및 그 처리 결과, 변경 분류 및 그 사유, 요구사항 집합, 적합성 테스트 모음, 그리고 해당 테스트 모음이 프로토콜 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나타낸 결과.

R-23 해야 한다 이 프로토콜이 판단에 맡기는 결정 (§1.4) 은 결정 시점에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사후에 재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9. 적합성

VE-P1 준수 여부는 본 저널의 절차에 따른 속성이자, 특정 평가자의 업무에 따른 속성이 아닙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한 평가 모음은 공개된 릴리스 기록을 바탕으로 각 요구사항에 대해 ‘합격’, ‘불합격’ 또는 ‘해당 없음 (사유 명시)’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저널은 발표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 자체적인 적합성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타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 프로토콜 절차는, 바로 이 프레임워크가 거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 초안에서 열기

- R-7 에서 30 일이라는 기간은, 그 이전의 60 일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주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정하기 전에 ANSI 의 적법 절차 관행과 ASTM 의 투표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는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니며, R-8 에 따르면 각 초안에는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검토는 저널의 ‘Discourse’ 포럼에서 초청된 명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의도된 절충안입니다. 참여가 비공개인 반면, 신원은 공개됩니다. 즉, ASTM 이 위원회 구성원을 공개하듯이 명단도 공개됩니다. 익명의 검토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 이의 제기 절차는 없습니다. 제안이 거부된 제안자나, 의견이 기각된 검토자는 여기에 기록된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를 요구하며, 그 부재는 이 초안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 합의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 절차는 편집자가 결정하는데, 이는 현재 규모의 학술지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공인된 표준 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리즈가 향후 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변경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